

#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

## 초록

주제어 : 기독교대학, 종교적 배경, 대학환경풍토, 대학 몰입

### I. 서론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8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이데일리, 2016년 9월 28일자), 대학가는 이 위기가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대입 학령인구는 2020년 51만 명, 2025년에는 45만 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며(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12월 8일자), 이는 2017년 대입 정원인 56만 명 기준으로 보았을 때 11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작년 3월에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통해 2019년까지 5만 명, 2023년까지 7만 명의 대학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발표했다. 신입생 총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총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6년 교육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학년도 중도탈락 대학생 수는 140,591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생대비 중도탈락률은 7.5%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4년제 대학의 재학생 총원율은 110.8%로 전년 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대학에서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을 찾고, 그들이 대학 내 소속감, 만족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2011년부터 매년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를 통해 학생들의 소속대학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별로 자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소속대학에 대한 애착과 몰입 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학생이 대학 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업 및 그 외 대학 활동에 전념하게 되면 대학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대학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소속대학에 대한 몰입수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해외에서 학생의 학업중단에 관련된 연구와 함께 진행되어 왔다. 대학 몰입의 이론을 가장 먼저 현장에 적용한 Tinto(1987)는 대학생이 대학 생활 동안 겪는 학문적, 사회적 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면 대학체제와의 통합을 경험하고 이는 소속 대학에 대한 몰입 정도에 영향을 미쳐 학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즉, 학생이 대학에 정서적 애착을 가지고 소속감을 느낀다면 소속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stin, 1993; Bean, 1980, 1982; Pascarella & Terenzini, 2005, Strauss & Volkwein, 2004).

최근 국내에도 4년제 대학 학생들의 대학 몰입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권도희, 2013; 전하람, 2017; 최정윤, 2016; 홍지인, 배상훈, 2015; 한송이, 2016; 한미희, 2016). 학생의 개인 배경 특성과 대학 내 경험 요인, 그리고 대학의 환경적 특성이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 대학생의 대학 몰입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우리나라 전체 일반 4년제 대학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한 목적과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일반대학과는 다른 기독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교육이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독교대학 재학생들의 대학 몰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며, 캠퍼스 내 곳곳에 기독교적 문화가 스며들어 있으며(이상윤, 2004),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학생이 함께 이러한 문화를 접하며 생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공동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개인들과의 상호작용, 대학의 특수한 환경 및 풍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들이 대학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Astin, 1993; Pascarella & Terenzini, 2005, Strange & Banning 2001), 기독교대학이 가질 수 있는 개별적 요인을 고려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대학은 환경적 특성과 운영 측면에서 학생충원 및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독교대학은 구조적 특성상 일반대학과는 달리 학교성과 교회성, 학문성과 종교성, 그리고 이성과 신앙의 통합으로 형성되었다 할 수 있다(허도화, 2016). 기독교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채플, 기독교 교양과목은 매 학기 개설되고 있으며, 그 외 기독교적 문화가 들어있는 각종 교내 행사들이 다수 개최된다. 평소 교회 문화를 접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낯선 환경에 새롭게 적응을 해나가야만 하며, 이러한 부분들은 일부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김영종(2016)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독교 대학 내 학생들이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기독교 문화를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학생의 경우 캠퍼스 문화에 상당한 이질감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 대학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체고등교육기관 중 4년제 일반대학의 학업 중단률은 4.1%인데 반해, 기독교대학은 6.7%로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기독교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에 비해 등록금의존도가 높은 실정이기<sup>1)</sup>, 대학 운영을 위한 재정

1) 2015 대학알리미 기준 일반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의존율은 54.7%. 기독교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62.4%로 나타남

확보의 측면에서도 학생층원에 사활을 걸어야하는 입장이다. 이외 각종 기독교적 교육과정, 채플 등은 정 부평가항목에 포함되는 않는 영역이므로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지표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구조를 띄고 있다.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대학 몰입에 관한 연구는 해외선행연구에서 다루어져왔지만(Morris & Smith, 2003; Morris & Beck & Smith, 2004; Cash & Bissel, 1985; Diggs, 1986), 국내에서는 아직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소속 대학 내 몰입수준을 분석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기독교대학의 학생들과 특수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대학 몰입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학생의 개인배경특성, 종교적 배경 그리고 대학 고유의 환경적 풍토를 고려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대학 간의 환경 차이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므로, 연구대상인 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환경풍토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대학에 재학생의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는 대학 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소속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 몰입

'대학 몰입'은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제시되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주요 개념으로 대학만족도(college satisfaction), 대학 내 소속감(sense of belonging), 대학의 전반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 소속대학에 대한 충성도(loyalty to the institution), 대학의 매력 정도(attraction to college), 대학 생활 적응(adjustment) 등을 포함한다(Beane, 1990; Nora & Cabrera, 1993; Tinto, 1993; 홍지인, 배상훈, 2015 재인용).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대학 몰입의 개념은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생들이 소속대학에 학업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간변인으로서의 간주되어 왔다. 이는 즉, 학생이 대학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대학에 대한 몰입을 하게 하면 이는 학업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대학 몰입과 유사한 개념으로써 '학생 참여(student engagement)'의 개념을 들 수 있다. Astin(1984)에 따르면, '참여'란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에는 학교 내 학습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대학조직에 속한 구성원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 대학 내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포함한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참여'의 개념을 '몰입'의 개념과 비교해본다면, 학생들의 적극적인 대학활동 등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는 학생의 행동적 측면에 강조점을 둔 개념이고, '몰입'은 대학환경에 집중하는 심리적인 동기 측면을 개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권도희, 2013). 즉, 학생의 소속대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참여'는 행동적 측면에, '몰입'은 심리적 측면에 강조점을 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 몰입의 개념에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지만 공통적으로 대학생이 대학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정서적인 애착을 형성하며 대학에 몰두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

구에서 대학 몰입은 학생이 학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매개 변인임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Beau, 1980; Strauss & Volkwein, 2004; Tinto, 1987, 1993), 대학생의 태도와 환경을 변화시켜 학습 참여 및 학업적 성취 등의 교육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Astin, 1993; Beau, 1990; Nora & Cabrera, 1993; Pascarella & Terenzini, 2005). 즉, 학업 중단을 예측하는 변인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교육적 성과에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할 수 있다.

## 2.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학생 개인의 특성과 대학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 요인에는 성별, 학년, 가계소득 수준, 전공계열, 입학 전 성적, 입학선호도, 거주형태, 연령이 있었으며(Love, 2013; Pascarella & Chapman, 1983; Strauss & Volkwein, 2014; 권도희, 2013; 배상훈, 한송이, 2016; 홍지인, 배상훈, 2015; 한송이, 2016), 대학 환경 요인에는 대학 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정도, 비교과 활동 참여 정도, 대학설립유형, 소재지, 규모 등이 있었다(Strauss & Volkwein, 2004; Tinto, 1993; 권도희, 2013; 유현숙, 임후남, 고장완, 2011; 최보금, 2014; 홍지인, 배상훈, 2015; 한송이, 2016). 특히 기독교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대학 내 구성원들과의 신앙적 교류정도, 사역활동 참여 정도 등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Walter, 2000; Morris, 2003).

## 3. 기독교대학의 대학 몰입

기독교대학 재학생들의 학업유지, 대학 몰입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해외에서 CCCU(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에 속한 기독교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소속 대학의 몰입 수준을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쓰인 분석들 중 하나는 Tinto(1987)의 “대학생 통합 모형”을 바탕으로 기독교대학 및 재학생들의 특성을 가미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개인 변인에 부모님의 종교, 채플 및 예배 참석 횟수, 교회활동 참여 정도 등을 종교적 배경 요인을 변수로 설정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대학 몰입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Astin, 1975; Burks & Barret, 2009; Stella, 2003). 분석결과 부모의 종교적 배경이 해당 대학의 종교계열과 일치할수록, 예배 및 교회활동 참석횟수가 높을수록 학생은 더 대학조직에 헌신,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들이 그들이 속한 캠퍼스 환경의 특성, 문화, 풍토 등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 내 경험 요인 중 학업적, 관계적 부분에 신앙적 부분을 첨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Schreiner(2000)는 The Student Satisfaction Inventory(SSI)<sup>2)</sup>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미국의 78개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대학만족도와 학업지속율을 조사하였다. 특히 기존의 측정항목에서 기독교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신앙적 만족도 변수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개인 신앙과 소속대학 내에서 경험하는 신앙적 통합 정도(religious integration)를 조사하였다. 측정문항은 ① 현재 대학은 영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② 학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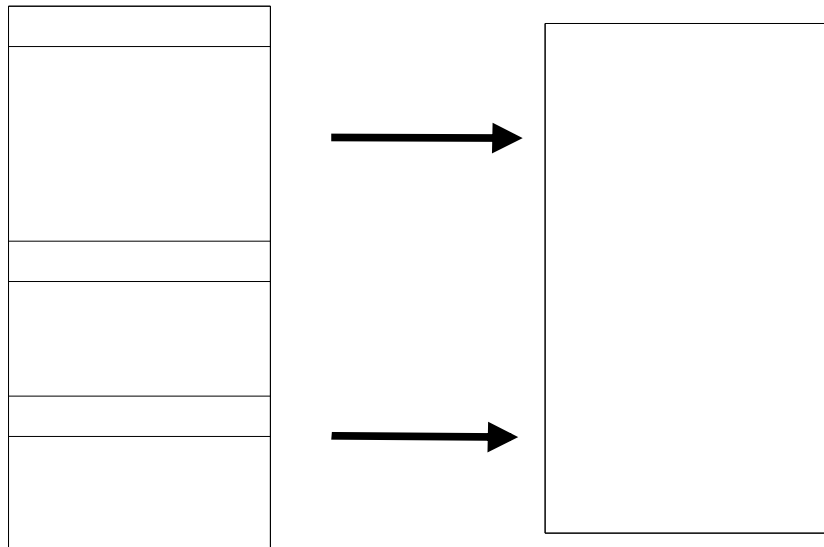
2) SSI는 학생이 다양한 대학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된 학업적, 사회적, 신앙적인 통합 정도가 학업 유지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및 대학 내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③ 교직원들은 개인 신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편임 ④ 현재 대학은 사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 편임 ⑤ 남학생, 여학생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는다. ⑥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감안할 때, 이 대학은 나에게 적합한 곳임 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이 소속된 대학환경을 개인의 영성, 신앙 발전과 적합한 곳으로 느낄수록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진행된 다수의 연구 등에서 학생의 대학 내 학업활동, 대학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정도와 더불어 신앙적 교류 및 통합 정도가 높을수록 소속 대학에 대한 몰입정도와 학업유지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urks & Barrett, 2009; Morris & Smith & Cejda, 2003; Morris & Beck & Smith, 2004; Stella, 2003, Walter, 200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기독교대학 재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한 몰입 수준을 형성함에 있어 종교적, 신앙적 요소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 문화에 전반적인 기독교적 요소들이 내재해 있는 기독교대학의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III. 연구의 방법

####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개인배경특성과 종교적 배경, 대학환경의 풍토에 대한 인식이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의 틀

이러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대학 몰입은 학생의 개인배경특성과 종교적 배경 요인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개인배경특성, 종교적 배경, 대학 환경풍토 변수는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독교인 학생과 비기독교인 학생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대상 및 특성

본 연구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공존해 있으며,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모든 학문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교육목적을 두는 4년제 기독교대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목회자라는 전문 직업인들을 교육하고 양성하고 이를 위한 몇몇 학과만이 운영되는 '신학대학'은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대상 대학으로 기독교대학만을 차별성을 가지기 위한 재학생 1만 명 이하 소규모, 현재 기독교 관련 과목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교 중 수도권 소재 3개, 지방 소재 1개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1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제 조사는 2016년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고, 대학별로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과 교양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편의 표집했다. 설문조사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31부를 제외하여 총 385부를 분석하였다.

<표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3. 연구변인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인특성 및 종교적 배경, 대학환경풍토 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 Strange & Banning(2001)는 대학환경을 학생들이 서로 개인과 상호작용하며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재구성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환경을 학생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이 인지하는 소속대학의 풍토, 분위기로 접근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종속변인

대학 몰입 수준의 측정을 위해 Nora & Cabrera(1993)가 개발한 대학 몰입 측정도구 중 우리나라 대학 맥락에 맞게 수정 및 개발된 진단도구를 활용하였다. 측정문항은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대학 선택에 대한 확신, 대학의 질과 명성에 대한 만족, 소속감, 실용적 가치, 충성도, 대학 일치성, 학업 지속 의도, 학업 지속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5 학부교육 실태조사」에서 측정되고, 한송이(2016), 한미희(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은 모두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대학 몰입 정도에 대한 8개의 문항의 점수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2> 대학 몰입변수 측정문항



#### (2) 독립변인

##### ① 개인배경특성

개인배경특성은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지니고 있는 내재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성별(남자, 여자), 학년(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공계열(인문계열, 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기숙사 거주 여부, 대학 입학 선호도<sup>3)</sup>를 적용하였다. 전공계열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KEDI)기준 7대 계열<sup>4)</sup> 중 기독교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은 이공계열로 합쳐 표기하고, 신학계열 전공을 별도로 선정하였다. 성별, 학년, 전공계열, 기숙사 거주 여부 변수는 명목변수이므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입학선호도는 서열적으로 척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으로 산출하였다.

## ② 종교적 배경

종교적 배경은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접했던 기독교적 배경의 영향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종교(기독교, 비기독교), 기독교적 배경(기독교학교 출신 여부, 부모님이 기독교인인지 여부, 현재 교회 출석 여부, 과거 교회 다닌 경험), 교회생활정도(교회 출석 회수, 교회 다닌 기간, 봉사 여부)의 8가지 항목을 정하여 적용하였다. 모든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 ③ 대학환경풍토

대학환경풍토는 기독교대학의 학생들이 재학 중 소속 대학에 대해 인지하고 느끼는 풍토, 분위기, 문화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환경풍토 특성'을 학업적 풍토, 관계적 풍토, 신앙적 풍토로 분류하여 변수를 설정했다. 학업적 풍토는 캠퍼스 내에서 수업 관련(과제물, 학점, 프로젝트) 준비 및 학업에 투자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관계적 풍토는 수업 외 교수 및 동료들과의 수업 외 활동 및 교류 등에 투자하는 수준 및 풍토를 측정하는 변인(문항)이다. 신앙적 풍토는 캠퍼스 내외에서 종교 활동 등에 참여하고 신앙 관련 문제로 구성원과 교류할 수 있는 지원적 분위기와 활동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문항)이다.

'학업적 풍토', '관계적 풍토' 변수는 「2015 학부교육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풍토' 변수를 통해 학생들 개인이 수업 및 학업에 참여하는 정도 및 인지하는 학업적 분위기를 측정하고자 하였기에 해당하는 문항을 발췌 및 수정하여 사용했다. 또한 '관계적 풍토' 변수를 통해 대학 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그룹과 토론 경험, 교수-학생 상호작용, 지원적 대학환경 중 해당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했다. '신앙적 풍토' 변수는 SSI(Student Satisfaction Inventory)조사 문항 중 신앙적만 족도 측정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했다.

설문지의 항목별로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 문항신뢰도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대학환경풍토 변수의 문항내용 및 척도



#### 4. 연구방법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사용하였다. 둘째, 학생의 개인배경특성, 종교적 배경에 따라 인식하고 있는 대학 몰입에 대한 차이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t-검정, 일원변량분석 및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 몰입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 VIF를 확인하였다. 넷째,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정규성 가정 검증을 위해 왜도과 첨도를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4.0을 활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를 살펴보고, 그 결과는 <표4>에 제시하였다.

<표 4> 기술통계 결과



## 2. 측정변수 간 상관분석

변수들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피어스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5>와 같다. 개인배경특성과 대학 몰입 간의 관계에서 전공계열 중 신학계열( $r=.12$ ), 기숙사거주( $r=.19$ ), 입학선호도( $r=.37$ )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배경과 대학 몰입 간의 관계에서는 교회출석여부( $r=.23$ ), 부모의 종교( $r=.15$ )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 대학환경풍토와 대학 몰입 간의 관계에서는 학업적 풍토( $r=.51$ ), 관계적 풍토( $r=.46$ ), 신앙적 풍토( $r=.55$ )가 모두 대학 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몰입에 부적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없었으며, 대학환경풍토 변수는 대학 몰입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 대학 몰입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계수

(N=385)

---

---

---

---

\*\*\*p<.001, \*\*p<.01, \*p<.05, 전공계열의 준거집단은 인문계열임

### 3. 개인배경특성, 종교적 배경에 따른 대학 몰입의 차이 분석

#### (1) 개인배경특성에 따른 대학 몰입의 차이 분석

기숙사 거주 여부에 따른 대학 몰입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69, p<.001$ ). 성별에 따른 대학 몰입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입학선호도의 경우 입학선호도가 높을수록 대학 몰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1순위, 2순위>3순위>4순위 의 순서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F=20.93, p<.001$ ). 전공계열에 따른 대학 몰입에 대한 차이도 유의수준  $p<.0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개인배경특성에 따른 대학 몰입의 차이검정 결과

---

---

---

---

---

\*\*\*  $p<.001$

#### (2) 종교적 배경에 따른 대학 몰입의 차이분석

##### ① 종교적 배경에 따른 대학 몰입 차이검정결과

분석결과 현재 종교가 기독교인 학생들이 비기독교인 학생에 비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44, p<.001$ ). 또한 부모의 종교, 현재 교회 출석 여부가 대학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현재 기독교인일수록 학생의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89, p<.01$ ). 또한,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이 출석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58, p<.001$ ). 교회생활정도를 분석결과, 현재 한 달에 교회를 3회 이상 출석하는 학생들의 대학 몰입이 3회 미만 출석하는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17, p<.05$ ). 나머지 세례 여부, 교회 다닌 기간, 봉사 여부는 대학 몰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종교적 배경에 따른 대학 몰입의 차이검정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
----	---	----	-------	---

\*\*\*  $p<.001$ , \*\*  $p<.01$ , \*  $p<.05$

### 3.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개인배경특성, 종교적 배경, 대학환경풍토에 대한 인식이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종교적 배경 요인 중 현재 종교, 기독교적 배경(기독교학교 출신, 부모의 종교)변수만 1차적으로 분석하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학생에 따라 구분되는 추가적인 변수들은 다음 장에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 8> 대학 몰입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N=385)

		$\beta$		$\beta$		$\beta$		$\beta$		$\beta$

\* 더미변수 기준 : 인문계열

\*\*\* p<.001, \*\*P<.01, \* p<.05

회귀계수의 검증 결과에 따르면, 모형 1의 통제변수 중에서는 입학선호도( $\beta=0.35$ ), 기숙사 거주 여부( $\beta=0.11$ )가 대학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입학 당시 해당대학이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대학 내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학계열 전공( $\beta=0.12$ ) 학생들이 준거변인인 인문계열 전공학생들에 비해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배경 변수를 포함한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입학선호도( $\beta=0.35$ ), 기숙사 거주 여부( $\beta=0.10$ )가, 그리고 현재 종교가 기독교인 학생이 비기독교인 학생에 비해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0.15$ ). 반면 신학계열 전공은 유의한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풍토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에서는 모형 1, 2와 마찬가지로 입학선호도가 높은 학생들과( $\beta=0.26$ ),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beta=0.09$ )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현재 종교가 기독교인 학생들이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13$ ). 추가로 투입된 학업적 풍토 변수는 대학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47$ ). 한편, 개인배경특성 중 성별이 새로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beta=0.10$ ),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적 풍토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4의 분석결과 모형 3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인 성별( $\beta=0.08$ ), 입학선호도( $\beta=0.27$ ), 현재 종교( $\beta=0.12$ ), 학업적 풍토( $\beta=0.34$ ) 변수가 마찬가지로 대학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투입된 관계적 풍토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beta=0.21$ ), 기숙사 거주 여부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인식하는 소속대학의 관계적 풍토 요인을 고려함에 따라 기숙사 거주에 따른 대학 몰입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함으로써 동료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기숙사 거주' 변수가 대학 몰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의 정도가 '관계적 풍토'의 영향력에 의해 상쇄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신앙적 풍토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5의 분석결과 개인배경특성 중에는 성별( $\beta=0.09$ ), 입학선호도( $\beta=0.08$ ), 종교적 배경 중에는 현재 종교가 기독교인지 여부( $\beta=0.08$ ), 그리고 학업적( $\beta=0.28$ ), 관계적( $\beta=0.14$ ), 신앙적( $\beta=0.33$ ) 풍토 변수가 대학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 대학환경풍토의 하위변인인 학업적, 관계적, 신앙적 풍토 변수는 모두 대학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독교인 학생들 또한 소속 대학 내에서 수업 및 학업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수록, 대학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 내 구성원들과의 신앙적 교류정도 및 만족도가 대학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학생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기독교대학에 재학생들을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을 두 부류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현재 종교 여부에 따라 종교적 배경의 측정요인이 다르며, 이에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 학생은 기독교적 배경 요인 중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여부'와 '교회 생활 정도'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비기독교인 학생은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므로 '과거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지' 여부만 기독교적 배경 변수에 포함하였다.

##### (1) 기독교인 학생들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9> 기독교인 학생의 대학 몰입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N=154)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R <sup>2</sup>	β	R <sup>2</sup>	β	R <sup>2</sup>	β	R <sup>2</sup>	β	R <sup>2</sup>	β

\* 더미변수 기준 : 인문계열

\*\*\* p<.001, \*\*P<.01, \* p<.05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에 따르면, 모형 1에서는 입학 당시 해당대학이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beta=0.30$ , 대학 내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0.19), 그리고 전공계열 중 예체능계열 전공( $\beta=0.16$ ) 학생들이 준거변인인 인문계열 전공학생들에 비해 대학 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배경 변수를 포함한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입학선호도( $\beta=0.29$ ), 기숙사 거주 여부( $\beta=0.16$ )가 대학 몰입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 전공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추가로 투입한 종교적 배경 변수들 중에는 현재 교회 출석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18$ ). 즉,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대학 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적 풍토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의 분석결과 성별( $\beta=0.26$ ), 입학선호도( $\beta=0.16$ ), 기숙사 거주( $\beta=0.14$ ), 사회과학계열 전공( $\beta=0.15$ ), 현재 교회 출석 여부( $\beta=0.15$ ), 학업적 풍토( $\beta=0.49$ ) 변수가 대학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 2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던 사회과학계열 전공이 새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관계적 풍토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4의 분석결과 성별( $\beta=0.24$ ), 입학선호도( $\beta=0.17$ ), 사회과학계열 전공( $\beta=0.14$ ), 현재 교회 출석 여부( $\beta=0.14$ ), 교회 출석 횟수( $\beta=0.18$ ), 학업적 풍토( $\beta=0.28$ ), 관계적 풍토( $\beta=0.30$ ) 변수가 대학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숙사 거주 변수의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적 배경 요인 중 교회 출석 횟수 변수가 새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신앙적 풍토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5의 분석결과 성별( $\beta=0.19$ ), 입학선호도( $\beta=0.15$ ), 현재 교회 출석 여부( $\beta=0.11$ ), 학업적 풍토( $\beta=0.21$ ), 관계적 풍토( $\beta=0.18$ ), 신앙적 풍토( $\beta=0.36$ ) 변수가 대학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계열 전공과 교회 출석 횟수의 유의한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앙적 풍토에 대한 인식( $\beta=0.36$ ,  $p<.001$ )이 기독교인 학생들의 대학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적 풍토( $\beta=0.21$ ,  $p<.01$ ), 성별( $\beta=0.19$ ,  $p<.01$ ), 관계적 풍토( $\beta=0.18$ ,  $p<.05$ ), 입학선호도( $\beta=0.15$ ,  $p<.05$ ), 교회 출석 여부( $\beta=0.11$ ,  $p<.05$ ) 순으로 학생들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의 대학환경풍토 하위변인이 대학 몰입을 설명하는 정도가 약 34%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기독교인 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의 학업적, 관계적, 신앙적 풍토 요인이 대학 몰입을 설명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중 학업적 풍토 변수의 영향력은 약 2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의 학업적 분위기는 기독교인 학생들의 대학 몰입수준을 설명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기독교인 학생의 개인배경특성, 종교적배경과 대학환경풍토 인식에 따라 대학 몰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배경특성에 신학계열 변수를 제외하였으며, 종교적 배경에는 기독교학교 출신여부, 부모의 종교, 교회 다닌 경험여부 변수를 포함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 비기독교인 학생의 대학 몰입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N=231)

		$\beta$		$\beta$		$\beta$		$\beta$		$\beta$

\* 더미변수 기준 : 인문계열

\*\*\* p<.001, \*\*P<.01, \* p<.05

모형 1에서는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배경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 통제변수인 성별, 학년, 전공계열, 기숙사 거주 여부, 입학선호도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2에서는 비기독교인 대학생의 종교적 배경 요인인 기독교대학 인지, 기독교학교 출신, 부모의 종교, 교회 다닌 경험을 추가로, 모형 3에서는 대학환경풍토의 하위영역은 학업적 풍토를, 모형 4에서는 관계적 풍토를, 마지막으로 모형 5에서는 신앙적 풍토를 추가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모형 1의 통제변수 중에서는 입학선호도( $\beta=0.38$ ), 기숙사 거주( $\beta=0.12$ ), 이공계열 전공( $\beta=0.14$ )이 대학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경우 이공계열 학생들이 준거변수인 인문계열 학생들에 비해 대학 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독교인 학생들과 달리 성별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배경 변수를 포함한 모형 2에서는 입학선호도( $\beta=0.39$ ), 기숙사 거주 ( $\beta=0.11$ ), 이공계열 전공( $\beta=0.15$ )이 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 몰입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투입된 기독교적 배경 변수 중 대학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업적 풍토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의 분석결과 입학선호도( $\beta=0.33$ ), 학업적 풍토( $\beta=0.48$ ) 변수가 대학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공계열 전공, 기숙사 거주 변수는 유의한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풍토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4의 분석결과 성별( $\beta=0.08$ ), 입학선호도( $\beta=0.33$ ), 학업적 풍토( $\beta=0.39$ ), 관계적 풍토( $\beta=0.17$ ) 변수가 대학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모형 1, 2, 3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 4에서는 추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적 풍토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5의 분석결과 성별( $\beta=0.08$ ), 입학선호도( $\beta=0.30$ ), 학업적 풍토( $\beta=0.34$ ), 관계적 풍토( $\beta=0.12$ ), 신앙적 풍토( $\beta=0.24$ ) 변수가 대학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기독교인 학생들도 기독교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소속 대학환경에 대한 학업적, 관계적, 신앙적 풍토 인식이 높을수록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기독교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풍토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개인의 종교적배경과 무관하게 대학구성원들과의 신앙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대학 내 많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수록 대학 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업적 풍토인식 정도( $\beta=0.34$ ,  $p<.001$ )가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대학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학선호도( $\beta=0.30$ ,  $p<.001$ ), 신앙적 풍토( $\beta=0.24$ ,  $p<.001$ ), 관계적 풍토( $\beta=0.12$ ,  $p<.05$ ), 성별( $\beta=0.08$ ,  $p<.05$ ) 순으로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4년제 기독교대학 재학생들의 대학 몰입은 학생의 개인배경특성, 종교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현재 기숙사가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거주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대학 몰

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 내 같은 공간에 거주하면서 대학공동체에 학업적, 사회적으로 통합되는 정도가 높아지며 이는 대학 몰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의 선행연구결과와 상충되는 점이 있어(권도희, 2013; 한송이, 2015)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입학할 당시 소속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전공별로 신입생들의 특성과 신앙적 배경, 진로 등을 고려해서 학생이 대학체제에 긍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종교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부모님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둘 다 아닌 경우보다, 현재 종교가 개신교인 학생이 무교인 학생에 비해 대학 몰입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기독교대학 학생의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배경특성 중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입학 할 당시 소속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선호도가 높을수록 입학 후 소속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결과는, 입학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소속 대학에 대한 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몰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로 나온바, 대학에서 집단 상담프로그램이나 공동체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학 내 여학생이 정서적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기독교인인 학생이 비기독교인인 학생보다 대학 몰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소속대학 내에서 겪게 되는 기독교적 문화 등에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익숙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대학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소속대학을 학업적, 관계적, 신앙적 상호작용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식할수록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대학의 학생이 대학 내 경험을 통해 대학환경의 학업적, 관계적, 신앙적 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소속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Walter, 2003; Morris, 2002). 즉, 학생들이 대학 몰입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개인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대학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학업 활동 및 구성원들과의 교류 정도, 그리고 종교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학생들의 소속대학의 몰입수준도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신앙적 풍토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온 것을 고려할 때 교수-학생 또는 동료 간 서로의 신앙적 배경과 관련 없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학생으로 나누어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종교적 배경을 제외하고 성별, 입학선호도, 대학환경풍토 요인이 공통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기독교인 학생의 기독교적 배경과 교회생활 정도는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외선행연구 결과와는 상충되는 점이다(Astin, 1975; Burks & Barret, 2009). 이러한 결과는 해외와 우리나라의 기독교대학의 특성과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점이라 추측할 수 있다. 종교적 배경과 관련해서 기독교인 학생은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기독교인 학생은 대학 몰입에 종교적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적 요인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캠퍼스 내 다양한 기독교적 활동 등에 부담 없이 참여하며, 대학 내 구성원들과 신앙 관련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기독교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 지나치게 종교적인 접근 또는 기

독교적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기독교인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학생 모두 학업적, 관계적, 신앙적 풍토 요인은 대학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적 풍토와 신앙적 풍토 변수는 대학 몰입에 가장 뚜렷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기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의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 몰입은 학생들이 대학환경에 갖게 되는 긍정적인 태도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기에 학문적, 신앙적 영역 중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신앙교육과 더불어 졸업 후 전공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신앙적인 성장과 더불어 꾸준한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층모형을 통한 보다 많은 기독교대학들의 대학 수준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기독교대학들 또한 규모나 교단 배경, 입학난이도, 학생 구성 등에 따른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소속 대학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다 할 수 있다. 선행연구결과(Walter, 2000) 대학수준 특성 중 학생1인당 교육비, 규모, 성별 비율 등이 학업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개인이 인지하는 대학환경풍토가 대학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대학 간 차이를 파악하여 더욱 체계적인 연구 및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몰입을 측정함에 있어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Tinto의 대학생통합모형은 대학 입학 이전의 학생 특성과 입학 시 대학 몰입, 그리고 재학 중 대학기관 경험을 통한 학업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까지는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종단연구를 통해 학생이 대학 입학 후 대학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학업적, 사회적, 신앙적 체제에 통합되는지 이후 어떻게 대학 몰입에 학업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몰입이 실제 학생들의 학업유지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더욱 많은 변수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종교적 배경 특성이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민감한 변수들은 제외시켰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대학 학점, 고등학교 성적, 경제적 형편, 부모 학력, 입학난이도 등의 변수 등은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이기에 추후에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